

부르주아혁명과 노동자계급

최갑수

1. 근대적 혁명 개념의 등장

전통적 의미: 정체(政體)의 순환

근대적 의미: 진보관, 저항권의 관념, 소유권의 문제

그 결과 '사회혁명'에 관한 전망이 제기될 수 있었음.

2. 사회혁명론의 계보

1) 홉스(1588-1659)에게서 이미 사회혁명론의 단초가 보임. 의회의 편에 선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했음. 아울러 그에게 혁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요소가 있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함.

2) 해링턴(John Harrington, 1611-1677) 토지소유권이 인민의 자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함. 혁명은 재산소유권의 급격한 이동에 입각한 것임. “그래서 만일 소수가 나머지만큼 부유하다면, 소수는 나머지만큼의 권력을 가질 것이다. 이 경우에 공동체는 불평등할 것이고, 그것이 평등해질 때까지 굶주림과 찌꺼기가 끝이 없을 것이다.” 즉 정치적 태도는 재산 소유권의 성격 변화를 반영하며, 상이한 소유 형태들의 대표자들 사이의 갈등이 영국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임. 클라렌튼(Clarendon) 공작 에드워드 하이드(Edward Hyde, 1609-1674) 역시 유사한 인식에 이름.

3) 이런 점에서 영국 내전과 명예혁명을 보는 로크(1632-1704)의 견해는 하나의 후퇴임. 저항권, 소유권에 관한 근대적 관점에도 그는 전통적인 혁명관을 표명함. 당시 유럽에서 영국사회의 선진적 발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혁명과 진보의 결합을 방해했음.

4) 그리하여 발전단계설은 상대적으로 후진적이었던 프랑스의 중농학파와 스코틀랜드의 역사학파가 제기하게 됨: 특히 스코틀랜드는 이미 18세기 중엽에 일종의 '위로 부터의 혁명'을 경험함. '생계양식'에 입각한 '상업사회'라는 개념, 단순히 법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더 폭넓은 사회경제적 개념으로서의 '봉건제'. 이 양자를 결합시켜 농업사회를 넘어서는 성숙한 상업사회의 등장, 그리고 이 등장에 방해가 되는 '비자연적인' 봉건사회세력의 정치권력을 타도하는 것으로서의 혁명이라는 관념이 나타날 수

있었음. 그 결과 특히 스튜어트(James Stuart, 1690-1757)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회혁명을 연결시키는 탁견을 제시함. 그는 “지난 3세기 동안 유럽사에는 거대한 변화 - 아메리카와 인도제국(Indies)의 발견, 산업과 학문의 흥기, 교역과 사치품의 전래, 공공 신용의 확립, 보편적 세제의 도입 등 - 가 일어나 도처의 정부들은 그 기획을 전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봉건적이고 군사적인 것은 이제 자유롭고 상업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자유 정부는 봉건제와 대립되고, 상업은 군사와 대립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에는 (사람의) 숫자가 모든 것이었지만, 이제는 돈이 없으면 사람의 숫자는 의미가 없고, 이 사실만 고려해도 정치 혁명의 속성, 그리고 (혁명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의 속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업사회가 도래하려면 봉건영주세력이 분쇄되어야 하고, 이런 혁명이 아래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치계급 스스로가 위로부터의 혁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5) 미국혁명기(1775-1783)

미국혁명기에 근대적인 혁명관이 명확하게 등장하지만 사회혁명관을 제기하지 못하고 정치혁명론에 그침 - 미 식민지에서 봉건제의 부재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본적으로 ‘1688년의 자식’이었음.

6) 프랑스혁명기(1789-1799)

프랑스에서는 국가 자체가 주요한 봉건적 장애물이었음. 프랑스혁명이 사회혁명의 차원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이 여기에 있음. 민중이 대거 혁명 무대에 진입했음.

바르나브(Barnave, 1761~1793) 한때 자코뱅의 인원이었고 1791년에는 꺾양파의 인물. 사회혁명론, 특히 유물론적 역사해석. “사회적 상태의 진전은 점진적으로 권력의 새 원천을 만들고 구래의 원천을 약화시키며 힘의 균형을 바꾼다 ... 그러므로 정부들은 때로는 감지할 수 없는 느린 발전에 의해, 때로는 폭력적 충격에 의해 형태를 바꾼다 ... 기술과 상업이 인민에 침투하고 근면계급을 통해 새로운 부의 수단을 창출하게 되면, 정치법에서의 혁명이 준비된다. 토지소유가 귀족을 낳은 것처럼, 산업적 소유권은 인민의 힘을 증가시킨다. 그들은 자유를 얻을 것이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프랑스혁명 서설’) 여기서 인민이란 곧 부르주아지를 말함. 프랑스혁명을 부르주아혁명으로 파악하는 최초의 시도임. 물론 그는 꺾양파의 일원으로서 프랑스혁명이 1688년 영국 명예혁명과 유사한 것을 달성하기를 바랐음.

뢰드레(Pierre Louis Roederer, 1754~1835) 지롱드파 성향의 혁명가, 열월의 반동 이후에 학사원에 피선되고 무월의 쿠데타의 지지자였음. 아담 스미스를 프랑스에 소개하는데 역할을 했음. 혁명가치고는 드물게 산업자본가 출신임. ‘1789년 혁명의 정신’(1831) “혁명의 주된 동기는 토지나 사람을 모든 노예상태로부터, 그리고 산업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유권이나 자유에 관한 이해관계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 당시 존재했던 권리 상의 불평등을 참을 수 없다는 그 사실, 바로 평등에 대한 열정이었다.” 그러나 혁명이 경제적 이유들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경제적 발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다. “국민

이 자유와 소유권을 위해 했던 행위는 오직 그들이 권리의 평등을 얻기 위해 했던 행위의 결과이자 부작용이었다.” 여기서 뒤드레는 절대주의 전복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과 생산의 해방이, 꽤나 다른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행위자 대다수들의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제시하여 해석의 신기원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혁명이 중간계급인 부르주아지의 승리하는 사회적 내용을 가진 정치혁명임을 명확하게 제시했음.

7) 위에서 살펴본 선구자들의 궤적 위에서 왕정복고기에 들어 프랑스의 생시몽(Henri de Saint-Simon, 1760-1825), 기조(François Guizot, 1787-1874), 티에리(Augustin Thierry, 1795-1856) 등이 부르주아혁명론을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함. 그러나 1830년의 7월혁명 이후에는 프랑스혁명에 대한 사회혁명관이 후퇴하고 그것을 단지 정치혁명으로 파악하는 퇴행현상이 일어남. 아울러 이 시기는 자본주의의 출현이 명료한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인데,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선배가 이룩한 혁명을 사회혁명이 아니라 정치혁명으로 보이도록 노력했음. 이제 ‘소유권’이 아니라 ‘자유’가 혁명해석의 핵심어가 되었음. 단 자유주의자 가운데 예외가 있었다면 그가 바로 토크빌(1805-1859)이었음.

3. 마르크스(1818-1883)와 엥겔스(1820-1895)

1) 마르크스의 지적 편력

1843-1847년: 인식론적 틀은 계몽사상에서 사적 유물론으로, 혁명관은 정치혁명에서 사회혁명으로

“이 부분적이고 정치적인 혁명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그것은 시민사회의 한 부분이 자신을 해방시키고 보편적 지배에 도달한다는 것, 어떤 특정계급이 자신의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사회의 보편적 해방을 도모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이 계급은 사회 전체를 해방시키지만 그러한 시도는 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이 계급의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 그러므로 예를 들면 화폐와 교양을 가질 수 있거나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시민사회의 어떤 계급도 ... 자신과 대중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열광이라는 계기가 없다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 어떤 독일 민족의 혁명과 시민사회의 특정 계급의 해방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한 신분이 그 사회 전체의 신분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거꾸로 그 사회의 모든 결점들이 다른 한 계급에 집중되어 있어야만 하고, 나아가 이 다른 특정 신분이 보편적인 장애의 신분, 즉 보편적인 제약들의 화신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이 특정 영역이 사회적 결사체 전체에 대한 악명 높은 침해로서 여겨져야만 하고, 그에 따라 이 영역들로부터의 해방이 사회의 보편적인 자기해방으로서 나타나야만 한다 ... 프랑스의 귀족과 성직자들의 부정적-보편적 의미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 대립하고 있었던 부르주아지라는 계급의 긍정적-보편적 의미를 규정하였다.” (‘헤겔법철학비판’, 1843)

“사회주의적 저술가들이 이와 같은 세계사적 역할을 프롤레타리아에게 돌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비판적 비판이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저술가들이

프롤레타리아들을 신들로 간주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중략)프롤레타리아는 자기 자신의 생활 조건들을 지양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상태 속에 집약되어 있는 현 사회의 모든 비인간적 생활 조건들을 지양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의 생활 조건들을 지양할 수 없다. (중략)어떤 순간에 이러저러한 프롤레타리아가 또는 심지어 전체 프롤레타리아가 무엇을 자기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란 무엇인가, 또 그들은 자기의 이러한 존재에 걸맞도록 역사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가이다. 프롤레타리아의 목적과 그 역사적 행동은 그들 자신의 생활 상태 속에 그리고 오늘날의 부르주아 사회의 조직 전체 속에 확연하게, 지울 수가 없게 그려져 있다. 대부분의 영국 및 프랑스의 프롤레타리아가 이미 자기의 역사적 임무를 의식하고 있고 이 의식을 완전히 뚜렷하게 만들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상술할 필요는 없겠다.” (‘독일이데올로기’, 1845-1846)

“모든 혁명은 낡은 사회를 해체한다. 그런 한에 있어서 그 혁명은 사회적이다. 모든 혁명은 낡은 권력을 전복한다. 그런 한에 있어서 그 혁명은 정치적이다. (중략)일반적으로 혁명 - 기존 권력을 전복하고 낡은 관계들을 해체하는 것 - 은 하나의 정치적 행동이다. 그런데 혁명 없이 사회주의는 성취될 수 없다. 사회주의가 파괴와 해체를 필요로 하는 한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조직적 활동이 시작되는 지점, 사회주의의 자기 목적, 영혼이 출현하는 지점에서 사회주의는 정치적 베일을 벗어 던진다.” (‘독일이데올로기’)

중요한 점은 마르크스가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사회혁명론을 사적 유물론과 결합시켰다는 점이다.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동학을 혁명관에 투사하였다.

“생산력과 교통형태 사이의 이러한 모순은 과거의 역사에서 그 역사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도 몇 차례 나타났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때마다 하나의 혁명 속에서 폭발했다. 그리고 그 경우에 혁명은 부차적 양상을 띠었는데, 총체적 충돌로서의 여러 계급 사이의 충돌, 그리고 의식의 모순으로서의 사상투쟁, 정치투쟁 등이 그러한 것이다. 하나의 협소한 관점에서 보면, 이 부차적인 양상들의 하나를 끄집어내어 이것을 혁명의 토대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기가 점점 쉬워진 것은 혁명의 출발점이 된 개인들이 자신들의 교양수준과 역사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환상을 그리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의 견해에 따르자면, 역사상 모든 충돌은 생산력과 교통형태의 모순 속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그에게 부르주아혁명이란 ‘부르주아 자본가들이 수행한 혁명’이라는 제한된 의미를 넘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결정적 계기라는 거시적 전망을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2) 1847-1852: 이론과 실천으로서의 부르주아혁명

준거로서의 프랑스대혁명

영국과 프랑스의 혁명경험의 기본적인 동질성 - 부르주아 권력 강화의 국제적 과정, 사회의 변모: “1648년에 부르주아지는 근대적 귀족과 연합하여 왕권, 봉건적 귀족 및 지배적 교회에 대항하였다. 1789년에 부르주아지는 인민과 연합하여 왕권, 귀족 및 지배적 교회에 대항하였다. 1789년의 혁명은 그 본보기로서 (적어도 유럽에서는) 1648년의 혁명만을 가지고 있었고, 1648년의 혁명은 그 본보기로서 에스파냐에 대항한 네덜란드인의 봉기만을 가지고

있었다. 두 혁명들은 시간상으로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그 본보기들보다 1세기 정도 앞서 가는 것이었다.” “1648년과 1789년의 혁명은 결코 영국의 혁명, 프랑스의 혁명이 아니었다. 그 혁명들은 유럽적 규모의 혁명들이었다. 그 혁명은 낡은 정치 질서에 대한 사회의 특정한 계급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 혁명들은 새로운 유럽사회를 위한 정치질서의 선언들이었다. 이 혁명들에서 승리한 것은 부르주아지였다; 그러나 그 당시 부르주아지의 승리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승리, 봉건적 소유에 대한 부르주아적 소유의 승리, 지방주의에 대한 국민주의의 승리, 준프트에 대한 경쟁의 승리, 장자 상속제에 대한 분할 상속제의 승리, 토지가 토지 소유자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지배의 승리, 미신에 대한 계몽의 승리, 가문의 이름(姓)에 대한 가족의 승리, 영웅의 나태에 대한 근면의 승리, 중세적 특권에 대한 부르주아 법의 승리였다. 1648년의 혁명은 16세기에 대한 17세기의 승리였고, 1789년의 혁명은 17세기에 대한 18세기의 승리였다. 이 혁명들은 그것들이 일어난 당시의 세계의 부분들, 즉 영국과 프랑스의 욕구를 표현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세계의 욕구를 표현하였다.” (‘부르주아지와 반혁명’)

“완전히 다른 기초와 달라진 생산 양식에 입각해 있는 새로운 부르주아 사회는 정치권력도 탈취해야만 했습니다. 그 정치권력을 이 새로운 사회는 몰락하는 사회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탈취해야만 했는바, 이 정치권력의 조직 전체는 완전히 상이한 물질적 사회관계들에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혁명은 일어났습니다 ... 여기에 문제로서 놓여 있었던 것은 하나의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개의 분파들의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두 사회 자체의 충돌, 정치적 형태를 띤 사회적 충돌이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봉건·관료 사회와 현대 부르주아 사회의 투쟁, 자유 경쟁 사회와 준프트제 사회의 투쟁, 토지 소유의 사회와 공업 사회의 투쟁, 신앙의 사회와 지식의 사회의 투쟁이었습니다.” (‘라인지구 민주주의자 위원회에 대한 재판’)

혁명적 부르주아지의 기원과 의식

‘공산당선언’에서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지의 사회경제적 성취를 강조하나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역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실제로 그는 부르주아지가 혁명적 투쟁을 전개할 때, 명확한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보지 않았음. 이에 대해서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1852)이 탁월한 분석을 하고 있음. “헤겔은 어디에선가, 모든 거대한 세계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은 말하자면 두 번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한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소극(笑劇)으로.”

혁명가들의 자기기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즉 자신이 선택한 상황 하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어진, 물려받은 상황 하에서 만든다. 모든 죽은 세대들의 전통은 마치 꿈속의 악마처럼, 살아 있는 세대들의 머리를 짓누른다. 그리고 살아 있는 세대들이 자기 자신과 사물을 변혁하고 지금껏 존재한 적이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바로 그러한 혁명적 위기의 시기에, 그들은 노심초사하며 과거의 망령들을 주문으로 불러내어 자신에게 봉사케 하고, 그들에게서 이름과 전투 구호와 의상을 빌린다. 그리고는 이 유서깊은 분장과 차용한 대사로서 세계사의 새로운 장면을 연출한다. 그리하여 루터는 사도 바울로 분장하였으며, 1789-1814년 혁명들은 로마 공화국과 로마제국의 장식을 번갈아 가며 몸에 걸쳤다. 그리고 1848년의 혁명은 어떤 때는 1789년의 혁명 전통을, 또 어떤 때는 1793-1795년의 혁명전통을 흉내 내는 것이상을 할 줄 몰랐다 ... 이처럼 죽은 자를 주문으로 불러내는 세계사적 행위들을 관찰해 보

면, 금방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카미유 데몰랭, 당통, 로베스피에르, 생-쥬스트, 나폴레옹 등 옛 프랑스 혁명의 영웅들, 그 당파들과 대중은 현대 부르주아 사회를 [봉건적] 질곡에서 해방시키고 확립한다는 자기 시대의 과제를 로마 시대의 의상을 입고 로마 시대의 문구를 써서 실행하였다.”

1848년 독일의 ‘3월혁명’ 이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부르주아지가 프랑스 부르주아지에 비길만한 역할을 할 능력을 가졌는지에 회의적이었지만, 그래도 기대를 포기하지는 않았음. “귀족은 너무나 쇠잔해졌고, 소부르주아지와 농민은 나약하고, 노동자들이 나서기에는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엥겔스, 1847년 봄) 그러나 그들은 독일 부르주아들이 아예 혁명 초부터 절대주의 반동세력과 동맹을 맺을 정도로 민중의 개입에 움츠러들었음에 충격을 받았음. 함의: 절대주의 국가들이양보를 거절하고 부르주아지는 혁명적 역할을 수행할 의도도, 의지도 없고 노동계급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반혁명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야말로 좀 더 광범위하게, 절대주의 전복을 피하기 위해 일관되게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 되었음을 말해줌.

영구혁명론의 기원: 사실 영국혁명이나 프랑스혁명의 시기에도 민중의 개입은 혁명의 향배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졌음. “그러므로 예를 들어 1793년부터 1794년까지의 프랑스에서 보이듯이, 그들이 부르주아지에 대립했을 때에도, 그들은 비록 부르주아지의 방식으로는 아닐지라도 부르주아지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프랑스의 공포정치 전체는 부르주아지의 적들인 절대주의, 봉건주의, 속물적 시민층을 끝장내기 위한 평민적 방식과 다름없었다.”(‘부르주아지와 반혁명’) 하지만 이 경우에 그 역할은 부르주아혁명의 테두리를 결코 넘어서지 못함. “그러므로 만약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지배를 전복시킨다면, 그들의 승리는 일시적일 것이고, 1794년에서처럼 부르주아혁명 자체를 돕는 요소에 그칠 것이다”(마르크스, 1847) 독일의 경험은 새로운 결론을 유도했음. 독일에서 부르주아들이 반혁명세력과 동맹을 맺고 ‘민주파’가 부르주아혁명의 단계 이상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면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반혁명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음. 더 발전한 영국이나 프랑스의 노동계급의 국제운동의 토대 위해서 프랑스혁명을 계승한 누적적 상승운동이 더 발전한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조건과 맞물리면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음. 말년에 엥겔스는 당시에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음을 고백했지만 이미 이들은 영구혁명론을 착상하였음.

* 이 시기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얻어낸 부르주아혁명의 조건에 관한 기본전제:
1) 자본주의 생산력이 기존 봉건계급관계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발달해 있어야만 한다. 2)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혁명에는 그것을 수행할 사회세력을 필요로 하나, 그것이 꼭 자본계급일 이유는 없다. 3) 유럽 내 일부 민족을 포함하여 비유럽의 민족은 자생적인 기반 위에서 혁명이나 발전을 이룩해 낼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3) 1852년 이후의 마르크스와 엥겔스

생산력 발전과 성공적인 사회혁명의 가능성 사이의 연관성 강조함. 생산관계들이

생산력의 발전형태로부터 그 축색으로 변전할 때,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한 변혁의 시기가 그 시기의 의식으로부터 판단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의식을 물질적 생활의 모순으로부터, 사회적 생산력들과 생산관계들 사이의 현존하는 충돌로부터 설명해야만 한다.” 주체보다는 구조의 강조.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1859)

부르주아지의 혁명적 역할에 대한 더욱 회의적인 태도. 부르주아혁명이 더 장기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인식. 독일통일을 보면서 ‘위로부터의 혁명’이란 용어는 쓰지 않지만 ‘반동이 혁명 강령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음’을 인정했음.(마르크스, 1859) 미국의 남북전쟁을 부르주아혁명의 변종으로 파악하면서 미국 부르주아지의 예외적인 혁명성을 지적함. 그리고 유럽중심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특히 러시아의 혁명가능성에 큰 관심을 표명함. 러시아에서의 부르주아혁명은 아래로부터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관점.

4.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1) ‘사회민주주의’에서 부르주아혁명: 1889-1905

독일 사민당의 주도성. 카우츠키(1854~1938)와 플레하노프(1856~1918). 1905년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고전적 맑스주의 내부에서 긴장이 터져 나오고 대립과 차이가 드러나게 됨.

사회민주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승리: 착취 이론(현재의 자본주의체제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하다), 사적유물론(역사는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노동자계급정당의 출현(노동자들은 내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계급이다).

노동운동이 급진적 전통의 담지자로 자처하면서 ‘민주주의’ 및 ‘인민’과 스스로를 동일시함. 각국의 노동운동은 이런 관점의 민족사 서술을 자신의 정체성의 계보로 설정함.

사회발전의 보편적인 단계로서 자본주의: 각국은 동일한 양태의 발전을 겪게 마련이며, 역사의 속도는 강제될 수 없다는 관점이 제2인터에서 지배적인 경향이었음.

부르주아지의 작품으로서의 부르주아혁명.

“개개의 모든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 지배적인 경제적 생산 양식 및 교환 양식과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사회 구조가 기초를 이루어, 이 기초 위에서 그 시대의 정치사 및 지성사가 건조되고 오직 이 기초부터만 이러한 역사들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인류의 전 역사(공동의 토지 소유를 갖고 있던 원시 부족 사회가 해체된 이후의 역사)는 계급투쟁들의 역사였다는 것.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 지배 계급과 피억압 계급 사이의 투쟁들; 이러한 계급투쟁들의 역사는 하나의 발전 계열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는 착취받고 억압받는 계급 - 프롤레타리아트 - 이, 동시에 사회 전체를 모든 착취 및 억압, 모든 계급 차별들과 계급투쟁들로부터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계급 - 부르주아지 - 의 멍에로부터 자신의 해방을 달성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 (엔겔스, ‘공산당선언 1888년 영어판 서문’) 여기서 부르주아지는 사회주의로 귀결되는 극적 사건에서 혁명적 주체로 출현함. 그리고 마지막 보편계급인 노동자는 부르주아지의 계승자임.

이런 논리적 근거에서 플레하노프는 프랑스혁명에서 부르주아 혁명가들이 프랑스로 절대주의에 반대하는 일부의 귀족과 연합했듯이, 러시아의 노동계급 혁명가들이 짜르 전제정치에 반대하는 일부의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추구해야 한다는 혁명전략이 나옴.

2) 1905년의 러시아혁명 이후: 1905-1924

제2인터에게 이제 부르주아지는 더 이상 혁명세력이 아니었음. 앞으로의 혁명운동은 오직 노동계급운동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시기가 꼭 필요하다. 이렇듯 러시아에서 노동계급이 부르주아혁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논쟁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영구혁명론'이 제기됨.

이에 대한 트로츠키의 사후(事後)의 정리: "혁명에 관한 멘세비키의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이 환원될 수 있다. 러시아 부르주아 혁명의 승리는 오직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지도하에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어야만 한다. 그러면 민주주의 체제는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의 길에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을 거두게 하여 성숙한 자신들의 서구 형제들을 따라잡는 것을 용납할 것이다. 레닌의 전망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시대에 뒤쳐진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자신들만의 혁명을 끝까지 지도할 능력이 없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적 독재'를 통한 혁명의 완전한 승리가 중세 국가를 추방하고, 미국의 속도로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을 창조하고, 도시와 시골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넓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 혁명의 승리는 서구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강력한 자극을 줄 것이다. 그리고 서구는 러시아를 구질서의 복귀라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영구혁명에 관한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것이다. 러시아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완전한 승리는 농민 위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을 기반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형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임무까지 떠맡게 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동시에 국제 사회주의 운동에 강력한 자극을 줄 것이다. 오직 서구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만이 러시아를 부르주아적 복고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결론으로 이끌어 줄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 ('러시아 혁명에 관한 세 관념들', 1939)

레닌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 러시아 사회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복합적 총체이나, 러시아 국가는 기본적으로 봉건절대주의의 성격을 지녔다. 앞으로 올 러시아혁명은 부르주아혁명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과거의 잔재, 곧 농노제와 절대군주제를 단호하게 일소하여 자본주의 발전을 최대한 완전하게 보장하는 그런 변혁이다. 그렇다면 누가 혁명을 이끌 것인가? 부르주아들은 구체제의 실질적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프롤레타리아의 잠재적인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단호한 투쟁을 벌이는 것을 내켜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특수한 역사발전으로 부르주아혁명의 승리는 부르주아들의 승리로는 불가능하다. 농민 인구의 우세, 반봉건적 대토지소유에 의한 농민층의 끔찍스런 억압상태, 이미 사회주의당으로 조직화된 프롤레타리아의 힘과 계급의식,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부르주아혁명에 특수한 성격을 부여

한다. 이 특수성이 혁명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러시아혁명의 특수성은 그것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격을 갖는데 있다. 러시아혁명은 내용 면에서 부르주아적일 것이고(즉 혁명으로 자본주의 발전이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노동계급이 자신들의 요구를 확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치를 수용할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혁명이다. 즉 사회 경제적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부르주아적이다. 이 혁명은 부르주아 체제를 반봉건 전제정으로부터 해방시키면서 전제정을 전복한다. 그리고 그 때문에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계급의 요구를 시행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 인민의 혁명이 되는 것이다.”(1905) 여기에서 문제는 민주주의가 “부르주아 사회 경제적 내용”과 관련이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와 상응되지 않는 정치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1914년에 이르면 레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에서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있던 부르주아혁명관을 네 가지 점에서 확장, 심화시켰다: ① 부르주아혁명이라고 해서 꼭 그것을 부르주아지가 이끄는 것은 아니다. ② 그 결과로 어떤 계급이 지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부르주아혁명의 여러 대안적인 길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프로이센적인 위로부터의 혁명이나 미국식의 진정한 혁명적인 길 등. ③ 부르주아혁명에는 종점이나 완성의 순간이 있지만 어떤 계급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과정이 규정되고 속도에 차이가 난다. ④ 러시아를 포함하여 식민지나 반식민세계에서 발전을 위해 부르주아혁명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제 발전 정도(객관적 조건)와 광범위한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의 의식성 및 조직성의 수준(객관적 조건과 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관적 조건)으로 인해, 노동자 계급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방이란 불가능하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경제적 의미로든 정치적 의미로든 어리석고 반동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 그는 1904년만 하더라도 다가오는 러시아혁명에 대해 ‘정통적인’ 견해를 지녔으나 1905년이 되면 러시아혁명이 단지 전제정의 전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구 혁명운동과 합세하여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영구혁명론을 주창하게 됨. 여기에 1905년 10월의 총파업과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의 형성이 계기로 작용했음.

“러시아 노동계급은 특권국가의 강력한 저항 및 부르주아지의 의식적 휴지(休止)상태를 극복하면서, 전례 없는 조직된 투쟁의 힘을 발전시켜 왔다. 계급의 이해관계라는 강철법칙에 의해 전진하는 이러한 투쟁의 힘 앞에서 부르주아 혁명의 단계는 없다. 중단되지 않는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보존의 법칙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와 혁명’, 1905)

여기서는 Alexander Parvus (1867-1924)와 카우츠키의 영향이 작용함. “러시아 노동자는 18세기에 근대 절대주의가 발전시킨 강압이라는 수단에 아시아적 전제주의를 통합시킨 국가 내부에서 발전했다. 그것은 러시아에서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는 틀 안에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즉시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마주쳤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는 가장 고통스러운 길에서 정치상황의 광기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을 증오하도록 배웠고,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했다. 오직 가능한 노선은 확립된 질서에 대한 완전한 혁명 뿐이었다. 따라서 러시아 노동자는 본능적으로 혁명가로 성장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의식적 혁명사상을 받아들였다.” (카우츠키, ‘미국의 노동자’, 1906)

아울러 1905년의 혁명 자체의 실천적 영향. 상트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 의장 역임.

중요한 것은 영구혁명의 국제적 차원에 대한 트로츠키의 인식. “자본주의가 자신만의 경제양식과 관계들을 모든 나라에 부과하면서, 세계 체제를 단일한 경제적 정치적 유기체로 변모시켰다.”

“지금까지 러시아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를 절대주의와 봉건소유라는 쇠사슬과 족쇄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의 주된 추동세력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그리고 그것이 왜 프롤레타리아 혁명인지에 관한 이유이다. 산술적이거나 통계적인 추측이, 또는 형식적인 역사적 유추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역할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공론가들은 그들 자신이 이러한 모순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부르주아지를 러시아 혁명에서 신의 섭리로 보내진 지도자로 본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론적으로 미숙함을 나타내는 배내옷으로 프롤레타리아트를 감싸려 한다. 이러한 공론가들에게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는 다른 국가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들은 모든 국가들을 삼켜버리는 세계 자본주의 발전의 통합된 과정을 보는 데에 실패한다. 그 과정의 성격은 역사적인 상투도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분석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1905’, 1908-1909)

“만일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단지 부르주아 혁명적인 요소들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생겨난 우연한 결과였다면, 그들은 전 세계 반동 세력들의 조직적인 적대 행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에게서 조직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자신들의 능력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고립된 경우, 러시아 노동계급은 농민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반혁명에게 분쇄당할 것이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자신들의 권력의 운명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 혁명 전체의 운명을 유럽 사회주의 혁명의 운명과 연계하는 것밖에는 다른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부르주아 혁명적인 상황들의 돌발적인 결합에 의해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에게 엄청난 국가 권력이 주어질 경우, 그들은 전 세계 자본주의에 맞선 계급투쟁과 자신들의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결과와 전망’, 1906)

“만약 부르주아 계급들이 연합하여 프롤레타리아트를 타도한다면, 혁명은 한정된 부르주아 혁명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프롤레타리아트가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주도권을 획득하고 러시아 혁명의 국내적 한계를 부수는 데에 성공한다면, 혁명은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서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05’, 1908-1909)

레닌과 트로츠키의 융화?

그 유명한 레닌의 ‘4월테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는 제국주의 전쟁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하게 만든 일련의 혁명들의 **시작점**이라는 대단한 영광을 얻었다. 그러나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전 세계 노동자들 중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로 선택되었다는 생각은 명백히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완벽하게 잘 알고 있다.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다른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보다 덜 조직화되어 있고, 덜 준비되어 있고, 덜 계급의식적이다. 그것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특별한 속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시간, 아마 매우 짧은 그 시간**이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를 전 세계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로 만들 것이라는 역사적 환경의 특별한 국면이다. 러시아는 농민 국가이자,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후진적인 국가이다. 사회주의는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나 나라의 농민적 성격, 귀족계급의 손에 있는 광대한 토지의 축적은 1905년의 경험으로 판단하건대, 러시아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격렬하게 휩쓸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혁명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서곡**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한 **단계** 나아가가게 할지도 모른다.”

트로츠키: “러시아 혁명은 그 주요 과업에 관한 한 일종의 부르주아 혁명으로 시작됐지만, 이내 첨예한 계급갈등을 야기해 피억압 대중의 선봉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만 최후의 승리를 획득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일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강령에 제한되기를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러시아 혁명이 유럽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으로 전화될 경우에만 혁명을 끝까지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 혁명이 불발하면 부르주아 반혁명이 러시아 노동대중의 정부를 용납하지 않고 러시아를 뒤로,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공화국보다도 훨씬 뒤로 퇴보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트는 일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한계 안에 머물 수 없다. 즉, 프롤레타리아트는 **영구혁명**의 전술들을 채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민주주의의 최소강령과 최대강령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을 허물고 더욱더 철저한 사회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서구의 혁명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결과와 전망’의 1919년 서문)

레닌: “혁명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내용은 국가의 사회관계(체제, 기구)가 중세주의, 농노제, 봉건제를 정화하는 것이다. 1917년까지 러시아에서 농노제의 주요한 표시, 잔재, 자취는 무엇이었는가? 군주제, 사회신분체제, 토지소유권, 토지보유, 여성의 지위, 종교, 민족적 억압이다. 이러한 아우게이아스 왕의 마구간¹⁾의 오물들 중 어떤 것도 더 선진적인 모든 국가들이 125년 전[프랑스 혁명], 250년 전[영국 혁명]에 **그들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들을 완수했을 때 청소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 **10주** 안에, 1917년 10월 25일부터 1918년 1월 5일까지, 즉 제헌의회가 해산되었을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카데트들), 그리고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원들)이 **8개월 동안** 권력을 잡았을 때 완수했던 것보다 수천 배는 많은 것을 완수했다. 종교, 여성의 권리의 부정, 비러시아 민족들에 대한 억압과 불평등. 이것들은 모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문제들이다. 속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8개월 동안 단지 이야기만 나눴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들 중 **단 하나의** 나라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들을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노선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들을 10월 혁명의 입법으로 완전히 해결했다. 우리는 진지하게 종교와 싸워왔고 싸우고 있다. 우리는 **모든** 비러시아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고유한** 공화국 및 자치령을 보장했다. 러시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모든 다른 국가들의 탐욕스러운 부르주아지와 머리 나쁘고 겁먹은 소부르주아지가 예외 없이 개선하고 있는 봉건제와 중세주의의 역겨운 잔재인 여성의 권리에 대한 파렴치한 부정, 성의 불평등의 기반, 수단이 없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들이다. 150년 전, 250

1) 헤라클레스의 다섯 번째 임무가 이곳을 하루 만에 청소하는 것이었음. 삼천 마리의 소를 기르면서 30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던 이곳을 청소하기 위해서 헤라클레스는 알페이오스 강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이곳을 단번에 깨끗하게 청소했음.

년 전에 부르주아 혁명의 진보적인 지도자들은 인류에게 중세적 특권, 성의 불평등, 한 종교에의 국가적 특권, 민족적 불평등을 제거한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존중’, 즉 ‘사적소유의 신성한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 인해 방해받았던 것이다. 우리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이러한 저주받은 ‘존중’ 때문에, 세 번은 저주받은 중세주의와 ‘사적소유의 신성한 권리’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10월혁명 4주년’, 1921)

레닌이 영구혁명론을 수용한 것은 러시아혁명의 성격에 관한 변화된 평가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 헤겔의 ‘양질전화의 법칙’. 선진 서구의 경험: “1917년이라는 특정하고 역사적으로 독특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하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쉬웠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러시아에서 혁명을 **지속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좌익 공산주의’, 1918)

하지만 양자에게 유사했던 두 측면이 있음. 하나는 소비에트의 혁신성과 이중권력의 상태에 관한 인식. 다른 하나는 러시아혁명의 국제적인 배경의 중요성.

루카치(1885-1971): “따라서 진정한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을 변증법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과거의 위대한 부르주아 혁명들을 주도하였거나 혹은 수혜자였던 계급이 객관적으로 반혁명적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부르주아 혁명이 직면하였던 객관적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 즉 이 문제들의 혁명적 해결에 절대적 이해관계를 가졌던 사회계층이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부르주아지의 반혁명화는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적개심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르주아지 자신의 혁명전통의 포기를 의미한다.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과거의 혁명유산을 포기하고,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물려준다.** 이제부터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 혁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 된다. 다시 말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르주아 혁명의 과제는 오직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틀 내에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이 과제의 실현과정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의 실현과 폐기를 동시에 의미한다.” (‘레닌’, 1924)

부하린(1888-1938)과 프레오브라젠스키(1886-1937): “국가의 후진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러시아가 공산주의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대답은 주로 혁명의 국제적 중요성을 가리킬 것이다. 오늘날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세계혁명이 되어야만 한다. 러시아가 사회주의로의 운동에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만약 러시아가 전 세계 소비에트 공화국, 심지어 단지 유럽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부를 형성하게 된다면, 비교적 미발전된 산업국가로서의 러시아의 후진성은 모두 극복될 것이다.” (‘공산주의의 ABC’, 1920)

정통의 후퇴, 특히 카우츠키의 퇴행. 이에 대한 루카치의 논평: “마르크스의 가장 위대한 이론적 성취들 중 하나는 부르주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구별은 그의 동시대인들의 미숙한 자기기만의 관점에서 볼 때 극도로 실용적이고 전술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 혁명운동 내부에서 순수하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요소를 인식하는 것을 위해서 방법론적인 도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속류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구별을 화석화시켜, 양자의 혁명을 기계론적으로 분리시키고 만다.** 그 결과

기회주의자들은 현대의 모든 혁명이 각기 그 내부에 프롤레타리아트의 행동과 요구를 아무리 많이 내포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르주아 혁명으로서 시작된다는 경험적으로 옳은 관찰을 도식적으로 일반화시켜 버린다. 그들은 또 이 일반화로부터 혁명은 오직 부르주아 혁명일 뿐이며 따라서 이 혁명을 지지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과제라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 부르주아 혁명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자신의 혁명적 계급목표를 포기하게 만든다.**”(레닌, 1924)

독일 좌파인사인 Otto Rühle(1874-1943)의 러시아혁명에 대한 평가: “시작부터 러시아 혁명은 그것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부르주아 혁명일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혁명은 차르 체제를 제거해야만 했고,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닦아야만 했으며, 부르주아지가 정치적으로 말안장 위에 올라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했다. 상황의 특이한 연쇄과정을 통해 부르주아지는 자신이 역사적 역할을 수행할 어떠한 입장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르크스가 공식화하고 주장했던 발전의 단계론적 양상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봉건 차르 체제 이후에 자본주의적 부르주아 국가가 와야만 했다. 이 국가의 창조자와 대표는 부르주아 계급이다. 그러나 1917년 정부 권력에는 부르주아가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를 거부했던 프롤레타리아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주의 이론을 따라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볼셰비키는 더도 덜도 말고 한 번의 대담한 도약으로 러시아가 발전의 총체적 단계를 뛰어넘는 것에 착수했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은 세계혁명을 전망하게 되었다.” (1924)

3) 스탈린주의 정통의 대두: 1924-40

1924-28년에 스탈린 정권의 수립. 제1차대전 및 러시아혁명 이전에 사회민주주의 진영에서 익숙한 상식적인 가정에 입각한 부르주아혁명에 관한 스탈린주의적 해석이 정통해석이 되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이단으로 간주된, 고전적 마르크스 전통의 다른 풍요로운 해석들은 무시됨.

역사발전단계론의 부활

스탈린은 1924년부터 영구혁명론을 역사발전의 단계론과 일국사회주의론에 입각하여 비판하기 시작함.

스탈린은 1926년 1월에 부르주아혁명에 관한 이른바 정통해석을 ‘레닌주의의 문제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발표함: “1) 부르주아혁명은 대개는 자본주의 질서의 다소간 기성형태가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자라나고 성숙해져 이미 존재할 때 시작되는 반면에, 프롤레타리아혁명은 사회주의 질서의 기성형태가 부재하거나 거의 부재할 때 시작된다. 2) 부르주아혁명의 주요과제는 권력을 장악하여 그것을 기존 부르주아경제에 합치시키는 것인 반면에,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주요과제는 권력을 장악한 후 새로운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3) 부르주아혁명은 대개 권력의 장악으로 ‘완성되는’ 반면에, 프롤레타리아혁명에서 권력의 장악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권력은 구래의 경제를 변모시켜 새로운 경제를 조직하는데 지렛대로 쓰인다. 4) 부르주아혁명은 권력을 쥐고 있는 일군의 착취자를 다른 착취자 무리로 대체하는 것에 그치는데, 이는 구래의 국가기구를 철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프롤레타리아혁명은 권력을 쥐고 있는 모든 착취자 무리를 제거하고, 모든 근로대중 및 피착취대중, 곧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지도자를 권좌에 앉히는데, 이는 구래의 국가기구를 철폐하고 그

것을 프롤레타리아계급을 위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하기 때문이다. 5) 부르주아혁명에서 부르주아지는 언제까지고 수백만의 근로대중 및 피착취대중과 결집할 수 없는데, 이는 부르주아지가 그들에게 노역을 부과하고 착취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프롤레타리아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는 프롤레타리아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 주요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대중 및 피착취대중과 연계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 평가: 처음 세 명제는 영국과 프랑스의 혁명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혁명 전에는 자본주의가 거의 부재하여 국가가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스코틀랜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경험과는 배치되는 것임. 네 번째 명제는 봉건-절대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에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음을 전제함. 다섯 번째 명제는 그나마 가장 설득력이 있는데, 하지만 후에 그람시가 말하는 ‘헤게모니’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아울러 그는 1927년에 “제국주의국가 내의 혁명과 그 국가가 착취하는 식민지·종속국가 내의 혁명 간의 엄격한 차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제2인터, 더 정확히는 1917년에 멘셰비키가 가졌던 혁명단계론을 정식화했다: 첫 번째 단계는 전민족적 통일전선의 혁명, 두 번째 단계는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 세 번째 단계는 사회주의 혁명. 두 번째 단계의 반제투쟁에서 ‘혁명적’ 부르주아지에게 마땅히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영구혁명론의 거부.

본격적인 의미의 마르크스주의 역사서술은 스탈린주의의 등장 이후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가장 탁월한 집단이 Historians Group of the Communist Party of Great Britain. 1938년 창설. Christopher Hill, Rodney Hilton, Victor Keirnan, Brian Manning, John Saville, Geoffrey de Ste. Croix, Edward Thompson 등. 스탈린주의의 역사발전도식과 탁월한 과거구성능력의 결합. 이런 가운데 좌파 역사서술은 다양한 형태의 급진적인 관점들을 담아냄.

그 결과 역사적 개념으로서 부르주아혁명론이 나타남: 16세기부터 유럽의 봉건제 내에서 도시자본가계급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점차 새로운 사회형태의 경제적 토대를 놓았다. 이 자본가들은 경제적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봉건지주계급에 의해 사회적으로 열등한 처지에 놓이게 됐으며, 절대주의 국가에 의해 정치권력에서도 배제됐다. 1939년에 탁월한 혁명사가인 르페브르(Georges Lefebvre)는 프랑스에 관해, “그러한 괴리는 결코 영원할 수 없었다. 1789년의 혁명은 사실과 법 사이의 조화를 회복시켰다”라고 썼다. 봉건적 제약으로부터 자본주의를 해방시키기 위해 절대주의 국가는 타도되어야 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은 여전히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혁명의 완수를 위해 여타 피압계급과 연합해야 했다. 1940년에 힐은 영국내전(“계급전쟁”)에 관해, “의회는 도시와 지방의 상업 및 산업계급의 열성적인 지지, 요우먼과 진보적인 젠트리, 자유토론을 통해 그 투쟁이 정말로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던 광범한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을 타도했다”고 썼다. 이러한 역사가들 대부분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민중운동이 부르주아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래 의도했던 바를 훨씬 넘어 나아가게 했으나, 민중운동 자체의 고유한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대표적인 혁명사가인 소불(Albert Soboul) 역시 다음과 같이 썼다: “민중

운동은 당시의 지배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자체의 모순 때문에 특정한 목표(명확하게 규정된 어떤 기획 없이 상퀼로트가 추구하던 평등주의적이고 민중적인 공화국)를 달성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은 부르주아혁명을 옹호하여 결정적으로 개입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진보에 기여했다. 파리의 상퀼로트가 아니었다면, 부르주아지는 그렇게 급진적인 방식으로 승리할 수 없었다.”(1958)

정통해석의 문제점: 1) 부르주아혁명의 이른바 정통해석은 1640-60년(길게는 1640-89년)의 영국 경험과 1789-1815년(길게는 1789-1830년)의 프랑스 경험에 입각한 것임. 역사적 부르주아지의 혁명성을 전제함. 봉건지배층이 부르주아혁명의 성과를 시도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했음. 2) 역사발전의 목적론.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결정적 계기로서 부르주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 3) 단선적 역사적 계보의 설정: 독일농민전쟁과 종교개혁,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 1848년도에 일어난 거의 모든 혁명들, 이탈리아의 통일, 미국의 남북전쟁, 1905년과 1917년 2월의 러시아혁명, 멕시코혁명, 중국혁명 등등의 계보. 부르주아혁명을 세계의 모든 지역이 겪어야 할 역사적 과제로 인식함.

4) 부르주아혁명론의 재고: 1924-1940

망명객 트로츠키: 불균등결합발전론(uneven and combines development) - 부르주아민주주의 단계가 식민 및 반식민 세계에서 일어날 혁명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통찰. “여기서 후진 국가들에서 결합발전의 법칙은 - 후진적인 요소들과 가장 근대적인 요인들의 특유한 혼합이라는 의미에서 - 우리 눈앞에 가장 완성된 형태로 등장하며, 러시아혁명의 근본적인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구 러시아 역사의 야만성에서 초래된 유산인 농업문제를 부르주아지가 해결했거나 해결할 수 있었다면,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는 1917년에 권력을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소비에트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서로 완전히 역사적 계보가 다른 두 요인, 즉 (부르주아 발전의 여명을 알리는 특징적 운동인) 농민전쟁과 (부르주아 발전의 쇠퇴를 알리는 운동인) 프롤레타리아적 봉기가 함께 요구되었다.” (‘러시아 혁명사’, 1930-32) 1) 후발의 이점. “역사적으로 후진적인 상황이 갖는 이점은 그 나라의 국민이 어떤 일련의 중간적인 단계들을 건너뛴 채로 선진국들에 의해서 이미 마련된 모든 발전의 성과들을 특정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위의 책) 2) 세계자본주의의 상호연관성, 상호의존성, 국제성, 전지구성, 통합성; 강대국 사이의 끊임없는 경쟁;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에 대한 집단적이고 경쟁적인 지배력의 행사. 3) 사회주의혁명의 국제적 연계성 및 국가에 따른 차별성

옥중의 그람시(1891-1937): 수동혁명론(passive revolution) - ‘혁명 없는 혁명’. 수동혁명의 개념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자코뱅유형의 정치혁명을 겪지 않고 일련의 개혁과 전쟁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한 국가들에 또한 적용가능함. 기왕의 대부분의 부르주아혁명에서 부르주아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데 대한 이론적 의의 제기. 근거: 노동계급의 대두, 부르주아지 자신을 대신하여 자본주의의 지도력을 제공하는 대안적 주체의 존재, 지배층의 헤게모니. “수동혁명은 부르주아사회의 경제구조

에 의해 필연적으로 수반된 것도 아니었고, 부르주아 사회의 경제구조의 목적으로서 근대성에 새겨진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수동혁명의 성공적인 부과는 의식적으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함을 의미했다. 한편으로,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노동계급을 분해하는 전략을 발전시키도록 하면서, 노동계급을 기존 사회 내의 경제적-조합적인 수준에 묶어놓는 선택; 다른 한편으로, 하층 계급으로 하여금 수동혁명의 흡수논리에 저항할 역량을 갖춘 그들 나름의 헤게모니적 기구를 정교화하는 데 실패하게끔 하는 정치적 선택.” (Peter Thomas, *The Gramscian Moment*, 2009)

벤야민(1892-1940): ‘피압박민의 전통(tradition of the oppressed)’. 급진주의로부터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를 직접 연결짓는 역사적 계보학을 논파(論破)함. “역사가는 도대체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는가? 대답은 두말할 나위 없이 승리자다. 그런데 그때 지배하는 자들은 예전 승리자들의 후예들이다. 그에 따라 승리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일은 그때그때 지배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로써 사적유물론자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승리를 거둔 사람은 오늘날 바닥에 누워 있는 자들을 짓밟고 가는 지배자들의 개선행렬에 함께 동참하는 셈이다. 전리품은 통상적으로 늘 그래왔듯이 개선 행렬에 따라다닌다. 사람들은 그 전리품을 문화재라고 칭한다. 그 문화재들을 사적유물론자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유물론자가 문화재들에서 개관하는 것은 하나같이 그가 전율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것들을 만들어낸 위대한 천재들의 노고에 뿐만 아니라 그 천재들과 함께 살았던 무명의 동시대인들의 노역에도 힘입고 있다. 동시에 야만의 기록이 아닌 문화의 기록이란 결코 없다. 그리고 문화의 기록 자체가 야만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전승과 과정 역시 야만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1940)

부르주아혁명론의 현 단계: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으로 학계에서는 거의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임. 좌파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특정 혁명의 부르주아혁명 여부의 문제는 이미 논쟁의 주 무대가 아님. 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의 적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르주아혁명론은 여전히 오늘날의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출현과 그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주요한 통로의 하나임은 부정될 수 없음.